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로지역 경제, 국가간 탈 동조화 심화

- 2/4분기 중 독일·영국의 경제성장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반면, 그 밖의 유로지역 국가들은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유로지역 경기는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유로통계청은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/4분기 중 2.2% 증가함으로써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고 발표함.
 - 영국과 프랑스는 2/4분기 중 각각 1.1%와 0.6% 성장하였고 특히 기업의 투자, 고용, 가계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경제구조가 선순환구조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를 받음.
 -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1.5% 감소하고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스페인도 0.4%, 0.2%, 0.2% 성장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줌.
 - 따라서 독일과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1/4분기 중 0.4%p에 불과하였으나 2/4분기에는 2.0%p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.

- 독일 경제는 2/4분기 중 수출과 내수의 예상 밖 증가에 힘입어 유로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을 1%p 상승시켰으나 하반기 회복 가속화 여부는 내수 확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주요 예측기관들은 2/4분기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1.3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자동차, 기계류의 수출이 증가하였고, 제조업부문의 투자 증가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소득이 안정화되면서 내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.
 - 그러나 미국의 경기진작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유로화가치는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출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독일 경제의 회복 가속화는 내수 증가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.
 - 한편 독일은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유로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부진한 주변부 국가들은 긴축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된다고 하더라도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.

(Financial Times, 8/13)